

일본 군가같은 교가, 국악 반주로 바꿔드려요

〈軍歌〉 〈校歌〉

전남문화재단·전남도교육청
45개교 국악 선율 제작·보급
도내 초·중·고 20개교 대상
9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쿵~ 짹’을 ‘쿵~ 짹~ 짹’으로 바꾸는데 70년 넘게 걸렸다.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교가(校歌)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일본 군가 풍 교가가 많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지만 광복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일본 군가 분위기를 풍기는 노래를 학교의 상징으로 지켜오고 있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전남문화예술재단과 전남도교육청이 일본 군가형태나 행진곡 풍의 서양음악 교가를 흥겨운 국악 반주로 제작해 보급한다.

국악반주교가 제작 보급 사업은 전남의 전통 국악을 활용해 일본 잔재를 지우고,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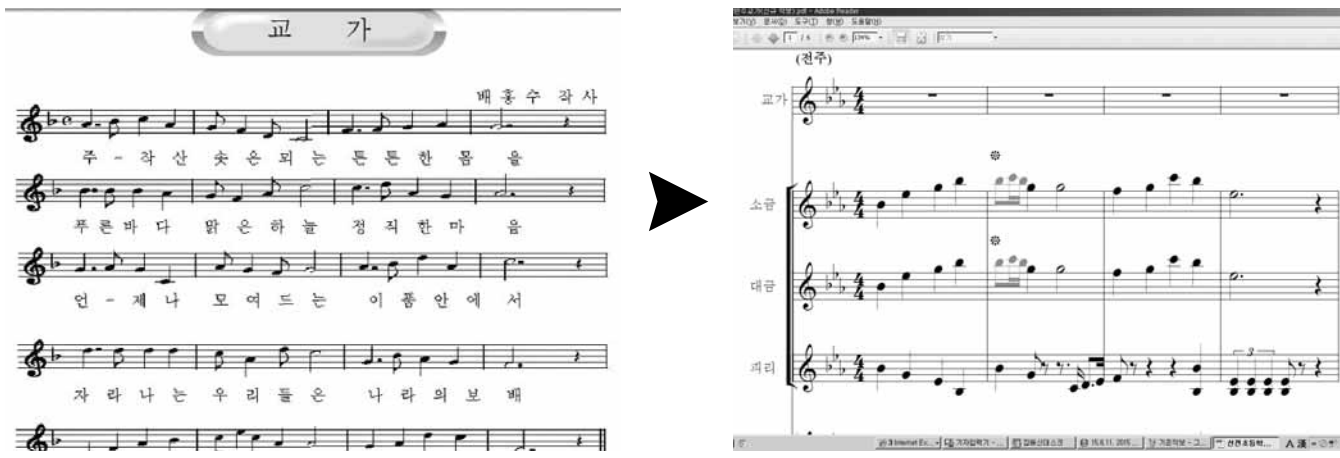
전남문화예술재단과 전남도교육청은 2000여만원을 예산을 들여 지난 2012년 ‘국악반주교가 제작·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시범사업으로 9개교의 국악반주교가를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6개교, 2014년 30개교 등 총 45개교(2014년 기준)에 제작·보급했다.

이 사업을 통해 나주북·나주산포·순천왕지·광양태인·강진신전·장흥안양초교와 강진 정림·진도 의신·고흥 중학교, 여수현영·완도수산·담양장평교교가 아름다운 국악 선율이 곁들여진 교가를 새로 얻었다.

편곡 작업은 전남도립국악단이 맡았으며 어린이국악단원들이 바뀐 교가를 녹음하고 제작발표회도 가졌다.

현재 전남지역 821개교 중 상당수의 학교가 여전히 일본 군가 풍의 교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1910~1945년대 개교한 286개교 대부분이 일본 군가 풍의 노래를 교가로 삼고 있다. 또 이후 교문을 연 학교들도 서양 음악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강진 신전초등학교 기존 교가 악보(왼쪽)와 국악풍의 새 악보.



지난해 6월 목포 향도초등학교에서 열린 ‘2014년 국악반주교가 제작발표회’에서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시선공연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 노래나 다른 문화권의 선율을 차용한 뒤 한글 가사를 붙여 교가를 만드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구 방식의 대규모 교육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교가를 제작하다 보니 일본 군가 풍의 교가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일본 군가 풍 교가는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선율과 리듬이 간단명료해 부르기가 쉬운 게 특징이다. 문제는 제국주의의 산

물인 일본 군가의 음악적 특징이 한 학교의 대표 음악으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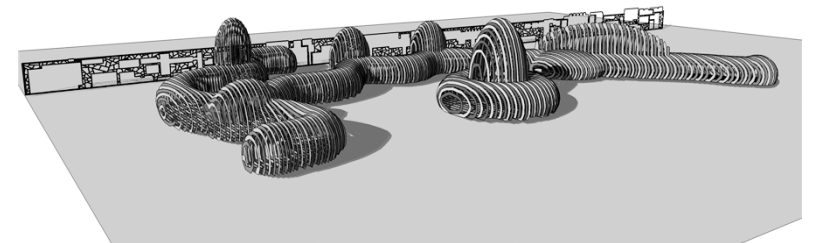
재단 등은 올해도 국악반주교가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재단은 신학교 중 심의를 거쳐 일본 군가형태 교가 등 개선이 시급한 교가를 보유한 학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총 20개교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제작할 계획

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9월 18일까지다.

재단 오영상 사무처장은 “이 사업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교가에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형식을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청소년들이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280-584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호윤·박성현·최윤미의 설치 예정작 ‘별별정원’

광주 양동 발산마을 두번째 미술 프로젝트

‘별별정원’ 등 7점 추가 설치

광주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양동 발산마을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발산마을 프로젝트 팀(대표 신호윤)은 8월 말부터 발산마을에서 ‘별이 뜨는 발산마을’ 두 번째 이야기 ‘별별정원’을 주제로 공공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별정원’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주민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 주력하게 된다. 예술작품을 통해 마을이야기를 표현하고 공·폐가를 활용한 거점공간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마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강동호, 구현주, 박성현, 백상우, 신호윤, 양재영, 이성용, 전주모, 최윤미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해 ‘별별정원’, ‘별빛이 흐르다’, ‘별을 품은 아이’, ‘희망탐사 프로젝트’ 등 모두 7점의 공공미술작품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는 6점의 작품이 발산마을에 놓였다.

신호윤, 박성현, 최윤미 작가의 ‘별별정원’에는 광주천의 모습을 모티브로 광주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된다. 이성용 작가는 아름다운 별빛이 내려오는 형상의 조형물 ‘별빛이 흐르다’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준모 작가는 ‘별을 품은 아이’라는 작품으로 꿈을 가득 담은 마을을 만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구현주 작가는 발산마을에서 희망을 찾아 감사하는 우주인의 모습을 담은 ‘희망탐사프로젝트’ 작품을 선보인다.

양재영 작가의 ‘별고래와 함께 매력 발산! 발산마을여행’은 친근한 동물 캐릭터들과 함께 마을을 여행하는 테마로 올해 개관한 공립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된다. 문의 070-7677-92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흥 출신 소설가 전성태, 이효석문학상 수상

창작집 ‘두 번의 자화상’

고흥 출신 소설가 전성태씨 <사신>가 제16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장작은 창작집 ‘두 번의 자화상’(장비)이다. 올해 등단 20년을 맞아 작가가 펴낸 이 작품집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첫사랑을 시작하는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소년들은 자라고 있다’, ‘망향의 집’ 등 모두 12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볼품만이나 진지하고 성실한 작가 의식을 증거하고 있는바,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지대를 치밀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고 평했다.



이효석 문학상은 이효석문학재단과 매일경제신문, 이효석문학선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평창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상금은 5000만원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오후 5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 효석문화마을에서 열린다.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전씨는 ‘달뿔’로 실천문학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는 소설집 ‘늑대’, ‘매향(埋香)’, ‘국경을 넘는 일’과 장편 소설 ‘여자 이발사’가 있으며, 평전 ‘김주열’ 등을 펴냈다. 2000년에 신동엽창작상을 받았고, 2009년 ‘늑대’로 채만식문학상, 무명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3200여명 몰렸다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담당할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에 3200여명이 몰렸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따르면, 10일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원서 마감 결과 응시자가 3000

여명에 달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아시아 문화의 연구와 홍보,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채용은 행정직군과 전문직군으로 나뉘어 선발하며 정규직 2~5급 ‘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문제부와 기재부가 채용인원을 협의중이어서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시험은 4~5급 지원자를 대상으로 직무

직성검사를 하게 된다. 필기 시험 등 채용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업체가 맡았으며 필기시험도 서울에서 치르게 된다. 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은 모두 20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획운영본부와 콘텐츠운영본부 등 2본부와 아시아문화연구소, 창·제작센터, 5개원 20개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현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